

# 科學街 뉴우스

한국科學技術研究所(KIST)

## 和蘭應用科學研과 結緣

最新技術情報 · 研究員 교류에 合意

歐洲屈指의

### 頭腦集團 TNO

한국과학기술연구원(所長 韓相準)는 和蘭應用科學研究所(TNO)와 科學技術 協定을 맺었다.

지난달 「헤그」에서 양측은 연구원과 최신 과학기술 정보를 교류키로 합의했다.

TNO는 6천여명의 직원을 거느린 유럽 굴지의 두뇌집단 중 하나이다.傘下에 工業、食品榮養、國防、保健 研究分野와 4개의 研究機構 40餘개의 研究室을 갖고 있는 綜合연구기관이다.

그中 工業研究機構에는 15개의 研究室과 2천5백여명의 研究員이活躍하는 研究기관이며 和蘭의 産業研究를 主導하고 있다.

TNO는 47年の 傳統을 가진 研究機關으로 다른 연구기관과 협력관계를 맺지 않아 오던 중 이번 KIST와 姉妹結緣을 맺게 된 것은 KIST의 位置를 높이 評價한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40餘名の 技術者가 和蘭에 派遣된 바 있다.

## KIST 化學工程 研究팀

### 國際原子力機構 위탁받아

### 週期反復 連續工程 開發

### 海水로부터 우라늄 抽出 研究 本格化

韓國科學技術研究所(所長 韓相準)는 國際원자력기구(IAEA)의 委託를 받아 海水로부터 「우라늄」抽出工程 開發에 關한 研究를 進行中에 있다.

KIST化學工程研究室尹昌求 崔昌均 朴貞玉研究員은 固形 吸着劑로 重金屬 固定床에 바닷물을 계속 통과시켜 「우라늄」吸着을 일컫는 週期的 脫着液을 대신 통과시켜 富화된 「우라늄」을 제거하는 週期가 반복되는 連續工程을 開發한바 있으며 계속 工程特性和 經濟性을 比較 검토하는 研究를 實施할 예정이다.

이 研究는 無限한 海水資源을 活用、原子力發電에 必

要한 核燃料을 供給하기 위한 것이며 IAEA와의 共同事業이기 때문에 研究結果를 다른 나라들과 활용토록 되어 있다.

海水에 溶解되어 있는 우라늄의 濃度는 3억분의 1 정도로 알려져 있다.

### 科總 理事會

### 3 個學會

新規加入 承認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회장 金允基) 77年度 第2次 理事會가 5月13日 科學技術會館 小會議室에서 열렸다.

이날 會議에선 定款 第22條、第23條에 依據한 78年度 豫算審議가 있었고、新規加入團體 承認이 있었다.

이날 加入이 承認된 學會는 다음 3個 學會이다.

◇ 韓國品質管理學會  
 學會長 張 建 型  
 會員數 4百68名  
 創立 67年 11月 18日  
 住所 서울麻浦區孔德洞 1 052153

◇ 大韓免疫學會  
 學會長 全 鍾 暉  
 會員數 2百1名  
 創立 74年 7月 20日  
 住所 서울鍾路區慶雲洞 89의 4 (카톨릭醫大內)

◇ 韓國地域社會開發學會  
 學會長 文 柄 鏞  
 會員數 2百10名  
 創立 75年 10月 25日  
 住所 서울冠岳區黑石洞 2 21 (中央大農科大學內)

高分子學會

定總 및 研究發表會盛了

韓國高分子學會(회장 李 杓경)는 第一回 定期總會 및 研究論文發表會를 5월 6、7 양일간 韓國科學技術研究所에서 實施하였다.

4백여명이 參席한 가운데 特別講演 2편과 3편의 招請講演 그리고 14편의 研究論文發表가 있었다.

# 核發電 기술 도입 一元化

## 原子力 技術用役會社 公社로 改編

### 美 백텔社와 새로 契約 協議

## KNE를 公社로

政府는 원자력 發電所 部門에 對한 技術導入 창구를 韓國原子力研究所(所長 尹容九)의 100% 出資會社인 한원자력技術用役會社(KNE)로 一元化하는 한편 이를 公社體制로 擴大改編하여 民間企業의 參與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原子力 5.6號機의 入札書 作成用役을 맡은 美國 유수의 建設 및 技術用役會社인 백텔과 위社가 大韓電線과 50對50의 投資比率로 技術合作 會社를 設立키로 合意한바 있는 假契約을 對해 조진부 승인을 철회했다.

KNE를 原子力發電 技術 窓口로 指定한 것은 원자력 발전이 莫大한 資金이 所要되는 國家的인 重要政策事業이므로 民間企業에 全擔시키지는 것보다는 官 民이 共同 出資하는 公社의 형태로 發足시키는 것이 보다 合理的인 이라는 配慮가 作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NE는 美 백텔社와 새로 技術協定 締結을 교섭중이다.

府政는 國產化 促進을 위 해 原子力 발전소를 非던기 方式으로 導入한다는 原則아래 韓電을 通해 백텔과 위社와 年初에 1백만弗 原子力 5.6號機에 對한 設計

國際入札 仕様書 作成을 爲한 用役契約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國內 會社와 技術用役合作회사를 設立, 原子力發電所 建立, 原子力發電所 建設과 運營에 對한 技術을 傳授토록 했던 것이다.

따라서 지난 3月 大韓電線과 백텔社, 50對50의 出資率로 技術用役合作會社, 設立에 合意하고 假契約을 체결, 外審委에서 조진부 승인까지 받았으나 이번 政府가 KNE를 韓國側 技術導入 窓口로 指定함으로써 大韓電線과 백텔社間의 合作 計劃은 白紙化되었다.

## 科技處

### 人事移動

### 公報官에

閔柄植氏

科學技術處 第2代 代辯人 閔柄植氏(前 現代經濟 特輯部次長)가 任命되었다. 新任 閔柄植代辯人은 初代 代辯人 李鍾秀氏(現 駐日科學館外 務理事官)에 이어 4월 30일 에 就任했다.

그리고 科學技術處 審議官 姜博光氏와, 工業研究官 金東善氏가, 各各 理事官으로 昇進했다. 또한 審議官 車源民氏는 駐오스트리아 參事官으로 영진되었다.

## 技能系 국가기술 자격試驗 全國서 61,742명 應試

한국 技術檢定公團(理事 長·李洛善)이 지난 8일, 10日 個主要都市에 서 今年度 第2次 국가 기술資格 檢定 試驗을 실시했다. 全國에서 6만 1천 7백 42명이 응시한 이번 檢定 시험은 기술자 等級정시험史上 最高의 記錄을 세웠다. △合格者 發表는 28일에 있을 豫定

## 日本 技術士 招請

### 特講 및 간담회

科總·한국 技術士會 共同主催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회장 金允基)와 한국 技術士會 共同招請으로 日本 技術士 27명이 지난달 28일 來韓했다. 이들 一行은 28日 한국 科學技術會館과 KIST를 訪問 韓國科學技術界의 이모저

모를 살펴보고 所感을 나누었다. 4月 29日 푸리 지멘트 호

에서 日本 技術士의 學術講演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日本 技術士 및 韓國 技術士, 科學技術界 70餘名이 參席하여 學術講演을 듣고 相互間 意見을 交換하였다. 이날 發表된 演題와 發表者는 다음과 같다.

◎ 日本 技術士會의 現況과 展望 高田一郎(日本 技術士會 事務局長)

◎ 工場建設計劃에서 製造 開始까지 扇田壽(扇田 技術士 事務所 所長)

◎ 最近의 鐵鋼技術 一戶正良(一戶 技術士 事務所 所長)

◎ 日本의 製鋼 黑瀨正行(太平 技術開發代 表)

## 科總 光云工大에

電子通信裝備 移管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회장·金允基)는 光云工大에 마이크로웨이브 세트를 寄贈 移管하였다. 이로서 科總은 3세트의 마이크로웨이브 장비를 정부 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공

대에 각각 移管시켰다.

# 韓·中 科學技術 협력 강화

## 兩國 共同覺書에 署名

自由 中國 國家科學委 徐賢修委員長 초청

### 韓·中 派遣

招請 60 名

27 個分野

政府는 自由中國과 科學技術協力을 強化하기 위한 方案을 協議하였다.

지난 4月 24~30日間 崔亨燮 科技處長官의 招請으로 徐賢修 自由中國 國家科學委員會委員長의 訪韓을 契機로 現在까지 進行되어온 韓·中兩國間的 科學技術 協力內容을 檢討하고 앞으로 協力內容을 強化할 수 있는 方案을 協議하고 崔長官과 徐委員長은 共同覺書에 署名하였다. 앞으로의 兩國間的 協力內容을 살펴보면

- ▲ 兩國의 科學技術者를 訓練시키기 위한 워크샵 開催
- ▲ 研究機關 共同 연구모임
- ▲ 電子工學, 生體工學, 化學, 金屬 및 機械工學에 대한 情報交換
- ▲ 細末化學藥品 開發
- ▲ 風力과 潮水에너지의 利用
- 地熱에너지 探查와 閩聯된 地質學, 地球物理學 및 地球化學 協力 등이 包含되어 있다.

한편 科學技術處 技術協力

局 발표에 의하면 금년도 韓·中과전 초청계획은 다음과 같다.

1977년 계획(한·중간)

파견 계획	인원	초청 계획	인원
중화학공업	4	방직공업	2
공산품품질관리	2	석유화학	2
해외경제및에산제도	2	중소기업	2
항공통신전자	2	경제계획	2
주택건설및 지역개발	2	무역증진	2
농업개발	3	해양화학	2
에너지교환기설치운동	2	동물사료및 농업생산성	2
과학기술정보	1	협동산업연구개발	4
과학기술발전소건설	1	자동차생산	2
고생물및시추기술	1	경유발동기	1
과학기술진흥	2	식품저장	1
과학기술진흥	3	씨스틸개발	1
해양화학	1	기타	3
	30		30

### 全國經濟人聯合會

#### 에너지廳 新設建議

一貫性있는 綜合對策 들이

全國經濟人聯合會(會長 鄭周永)는 國內外 에너지資源開發과 海外에너지 安定確保, 需給 圓滑化對策을 長期의 이고로 一貫性있게 推進하기 위해 現在 各部處에 分散되어 있는 에너지 關聯業務를 統合, 에너지廳을 新設하도록 促求, 建議했다.

全經聯은 지난 5월 3일 產業의 高度化와 所得水準向上에 따른 에너지需要 急增에 대비한 에너지源의 長期安定確保策으로 「綜合에너지 需給에 관한 意見」을 發表했다.

關係當局에 建議한 「綜合에너지 需給에 관한 意見」을 통해 全經聯은 長, 短期에너지 需給計劃을 별도로 마련, 有機적으로 施行함으로써 에너지政策의 試行錯誤를 事前 豫防토록 할 것이며 長期에너지 需給計劃은 적어도 10~20년 計劃으로 作成하되 短期에너지 需給計劃에 의해 經濟開發計劃과 調和를 이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石炭, 原子力, 石油, 電力等 에너지源別開發 및 需給對策을 제시하였다.

全經聯이 제시한 에너지源別 需給對策을 보면, 石炭產業은 賦存資源의 限界와 炭礦勞動의 及び경향으로 尙하물건고 있으므로 國家에 리로서 石炭資源의 安定確保와 一貫性있는 綜合對策의 必要性을 들고 있다. 그리고 長期의 石炭에너지 確保方案으로 新規, 國內資源의 開發, 推進, 外國과의 長期供給契約 締結 外國의 租權獲得으로 海外石炭資本의 開發 檢討를 내세우고 있다.

電力의 需給對策으로 非常發電施設 早速設置와 施設補修의 投資 擴大 등 緊急對策을 강구하며, 長期의 인 原子力發電所 建設計劃 擴大 推進으로 現 電源開發計劃의 補完 調整을 들고 있다.

또한 石油에너지의 世界的 限界性과 價格騰貴可能性 등 에너지 確保의 不安定性이 深化되고 있다고 前提하면서 經濟性, 安定성이 立證된 尙하有力한 代替資源으로서 原子力에너지를 포함한 國內 賦存에너지源開發에 政策의 優位性을 들것을 促求했다.